



맑고 향기롭게 떠난 법정 스님



‘물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홀로 사는 즐거움’을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대중에게 전했던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던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무소유>의 법정 스님(사진)이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세수 79세, 법

랍 56세로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12일 송광사로 이운된 스님의 법구는 13일 11시 송광사 다비장에서 본처로 환원했다.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

법정 스님의 의식은 임종 순간까지도 뚜렷했다. 입적 전날 밤 스님은 덕조·덕인·덕현 스님 등 상좌에게 “어디서든지 내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실천은 “길상사에서 단 하룻밤도 주무신 적이 없다”는 진화 스님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길상사를 시주 받으면서도 스님은 ‘회주’라는 소임조차 부담스러워했다. 상좌에게 길상사를 맡기고는 송광사 불일암에서 머물렀을 만큼 법정 스님은 (시주 받은) 길상사가 내 것이라는 마음이 털어놓지 않음도 없었다. 스님에게 길상사는 오히려 짐이었다.

소유에 구속되기 싫었던 대자유인은 받고도 받지 않았던 도량 길상사에서 11일 오후 1시 51분 원적에 들었다.

무소유와 소유의 차별을 여윈 대자유인이었던 법정 스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11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대자유인의 가시는 길에 수행력과 중단 지도력의 상징인 대중사 법계를 추서했다.

관련기사 2·3·14·15면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백재현 기자

“다시 출가 수행자 되고 싶다”

‘미리 쓰는 유서’ 통해 “장례식 치르지 말라” 당부

생전에 살았던 모습대로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도 단출했다.

3일장이다. 분향소엔 흔한 꽃 한송이 없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 마련된 분향소는 흰 벽을 배경으로 영정과 촛불, 향토만 놓여 있다. 으레 만들어지는 장의 위원회라는 조직도 없다. 장례의식을 하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뜻에 따라 다비준비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법정 스님은 1976년 초판 1쇄 발행 후 최근까

지 164쇄를 펴낸 <무소유>에서 ‘미리 쓰는 유서’를 남겼으며, 열반 하루 전날 후학들에게 이를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미리 쓰는 유서’에서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겉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라며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비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사리를 수습하는 일은 극구 말했다. “울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荼毘)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법정 스님은 “나생에도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 누가 뭐라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며 글을 맺었다.

정성은 기자

법정 스님의 ‘미리 쓰는 유서’

<앞 부분 생략> 죽게 되면 말없이 죽을 것이지 무슨 구구한 이유가 따를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레 죽는 사람이라면 의견서(유서)라도 첨부되어야겠지만, 제 명대로 살 만치 살다가 가는 사람에겐 그 번영이 소용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이므로, 유서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글이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白書)’가 되어야 한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대 한 인간의 순박한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이다.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을 것이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 관념이다. 그대로 속시 편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저녁으로 “신문이오”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겉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 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 주었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벗어 버린 현웃이니까. 물론 울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荼毘)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씬 낱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 ... 그런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사증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나생에도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 누가 뭐라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

“불교 이미지 관리 전략 수립해야”

권정만 교수, 대학생들 불교 비과학적으로 인식

대학생들은 불교를 ‘전통적이고 예술적’이지만 ‘미러지향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권정만 충남대 외래교수는 최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가 펴낸 <불교학리뷰> 제6호에서 기고논문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권 외래교수는 연구를 토대로 “불교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교세 확장을 위한 방법보다는 불교 고유 특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전략을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비판적 접근 및 비과학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외래교수는 금강대, 충남대, 청

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불교의 특성용어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성이 높은 단어로는 ‘결속하다·검소하다·건전하다·깨끗하다·신중하다·자제력이 있다·자비롭다·부지런하다·예술적이다·역사가 깊다·전통적이다·한국적이다’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있던 반면,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경우는 ‘사교적이다·재미있다·사회적이다·민주적이다·생산적이다

·과학적이다·미러지향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권정만 외래교수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불교의 긍정적 측면에서는 사찰 등 가시적인 것과 신도·스님들에 갖는 기대감의 이미지가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외래교수는 “특정 종교가 갖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종교에 대한 수용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불교 이미지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나는 기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등 처리

조계종 183회 임시총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가 3월 8~11일 제183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12일까지 회기였던 회의는 법정 스님 원적으로 하루 앞당겨 폐회했다.

회의에서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 △2009년 예산 결산 및 2010년 추경예산 승인 △봉은사 직영사

찰 전환 지정 승인 △동국대 감사 추천 동의 △승가학원 이사 추천 동의 △원로의원 추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선출 △직영·특별법담금사찰 결산검사건 등이 처리됐다.

회기 전 정점사안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동국대 이사 선임 동의 △선보사 직영사찰 해지 승인 △총무

부원장제 신설안은 부결됐다. 기타 종법 제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총회장의 보선 스님은 폐회선언에서 “이번 회기 이월 안건은 5월이나 6월 경 총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자”고 말했다.

제184차 임시총회에서는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 등 종법제·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조동섭 · 노덕현 기자

▶2·3·14·15 법정 스님 원적 ▶7 인터뷰·퇴휴 스님 ▶9 현장·장애인 제과제빵 훈련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 웨이셀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올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헬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뿜고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됩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헬프사, 죽사
· 품 도 - 세안 및 진산목욕, 목욕이, 냉수마찰, 스팀마찰,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삼립원 (한국산)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헬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의 손발은 소박하고 결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 (평숙에서 자연수열)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향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헬프사, 죽사
· 품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육식성 등 · 규 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 각 15,000원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헬프사, 죽사
· 품 도 - 세안 및 진산목욕, 목욕이, 냉수마찰, 스팀마찰,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진산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골에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용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 습포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반응을 받아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현대불교 헌불삼

헌불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할인)

구성: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헌불삼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들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